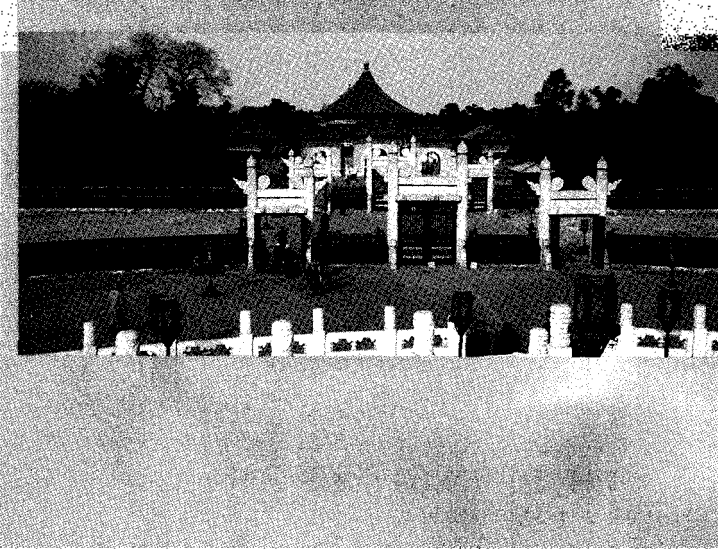


에이즈 신생국 ; 중국



이영숙/문화국제협력위원회 감사

중국은 문화역명으로 인해 오랫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이즈의 폭발적인 발생으로부터 다행히 보호막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시장경제의 도입, 증가되는 외국과의 교류, 변화되는 성가치관, 이동인구의 증가(약 5천만~1억2천), 마약사용 등으로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40만에 이르고 있으며 일 년에 10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이즈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신생국이 되었으며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성관계이고 그 다음이 마약사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3년까지는 유난성에 약 80%가 집중하였으나 지금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에이즈가 그동안 에이즈예방의 마지막 보류였던 사회주의 국가들인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차례로 공략하며 이런 국가들에서 새로운 맹위를 떨치는 것을 보면 에이즈야말로 다이하드(Die Hard)라고 할 수 있으며 안일함은 가장 금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에이즈관리의 주요 장애 요인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당국이 갖는 경직성이다. 매춘, 마약사용, 동성연애, 혼전 성관계, 혼외성

관계등 에이즈감염의 주요 위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과 현실간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간격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 경직성이 그것이다. 인간의 개인적인 성행위나 마약사용과 같은 습관을 공권력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강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결혼전에 정부의 결혼증명서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으며 결혼증명서를 받기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시행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뿐 아니라 이러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준수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도 매춘이 크게 성행하고 있고 7가지 수준의 매춘여성이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이 Lover for money 이고 가장 낮은 수준이 농부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이며 총 매춘여성수를 4백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춘이 불법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공관원에 의해 일부(실체수의 1/10) 매춘여성들이 체포되고 있으며 re-education center라는 기관에서 체포된 매춘여성에게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북경에서 열린 에이즈워크숍에서 만난 중국인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주도적인 다소 비인간적인 재활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매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사창가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철거작업이 이루어져 법률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매춘 행위에 대한 합당

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는 잘못하면 노출된 매춘행위를 더 통제하기 어려운 비노출 매춘행위 즉 유흥업소나 주택가등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매춘으로 변칙화시켜 에이즈와 성병 예방 등의 차원에서 더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매춘의 문제는 뿌리가 되는 원인 즉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 가난,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상업화와 수동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지 뿌리는 가만히 두고 가지만 쳐서는 문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처럼 정부와 민간단체의 구별이 뚜렷하여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많은 민간단체가 예산 및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것도 중국이 갖는 이러한 경직성의 일면이다. 매춘여성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마약사용자들을 위한 위험감소 프로그램(Harm Reduction Program)을 실시하려고 해도 정부의 위신이 깎인다는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국에 실제 감염자수조차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민간단체는 정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지시한대로만 일을 하려고 하고 모든 체계가 위에서 아래로(Top-down) 하향식이며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상향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에이즈감염 위험 집단에 파고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매스미디어도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서 메시지를 검열하여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일부 에이즈 정책은 다른 국가가 에이즈발생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비효율적 정책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서 5~6년 전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한 예를 들면 중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에이즈의 강제형성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에이즈에 걸리거나 전파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즈에 걸리거나 전파위험이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매춘여성들이 2개월 동안 매춘행위를 하고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에이즈의 강력한 전파성에 놀라서 대대적인 강제검사를 통해 에이즈감염자를 추방, 격리하려고 했던 상황과 비슷하며 이는 최근 몽고가 15~40세의 모든 여성에 대해 강제검사를 실시하려다가 포기했던 상황과도 유사하다. 의무적인 강제검사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에이즈 감염자발견율이 매우 저조하며 강제검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 방법에 비하여 매우 비효율적 방법이나 에이즈의 전파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강제검사와 격리수용조치가 자신은 에이즈로부터 안전하다는 환상을 주기 때문에 선호되기 쉬운 방안이다.

그러나 중국이 에이즈문제에 있어서 인도나 태국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NGO 네트워크와 역량구축'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한 필자.

UNAIDS대표의 말처럼 집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불을 끄려고 노력하면 쉽게 끌 수 있지만 불이 집전체에 퍼지고 나면 끌 수가 없다는 것은 중국의 상황에 정말 필요한 교훈이다. 중국은 제2차 에이즈예방 국가전력계획(1996~2000)을 수립하고 모든 정부부서의 참여와 협력을 종용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기의 강제적이고 처벌중심의 억압적인 정책을 개선하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에이즈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강제적, 비인간적, 비효율적, 보수적인 정책을 버리고 자발적, 현실적, 인간적,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와 저항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리고 에이즈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중국의 에이즈 예방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